

‘환경, 치유 그리고 정신건강’ 다섯 번째 이야기 〈배제와 통합〉

“정신건강과 지역사회”를 아젠다로 저희 연구단에서는 철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보건행정학, 건축학, 도시학 등 관련 학문 영역간의 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제 간 융합연구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환경, 치유 그리고 정신건강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 심포지엄은 다섯 번째 이야기로서 “배제와 통합”을 주제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 및 정주 환경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의 정신건강 관련 사건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회문화기반을 토대로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건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은 지역사회와 국가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며, 책무입니다. 하지만 통합보다는 배제로, 화합보다는 배타적인 지역사회의 태도에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문제에 대하여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철학, 사회복지, 의학, 도시재생, 건축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배제와 통합”을 주제로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기관에 대한 배제, 그리고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험지식의 공유, 진솔한 논의, 해법과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13:30-13:50	등록	사회: 박훈 [강원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13:50-14:00	개회	개회사: 채철균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14:00-14:30	발표1	‘차별과 배제로부터 환대와 열림으로’ 주재형 [단국대학교 철학과]
14:30-15:00	발표2	‘국가 정신건강기관 설립을 둘러싼 사회갈등과 지역사회와의 통합 경험’ 남윤영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15:00-15:20	휴식	다과 및 휴식
15:20-15:50	발표3	‘왜 재개발의 결정은 정부가 했는데 고민은 민간의 몫일까’ 문용훈 [태화생ս는집]
15:50-16:20	발표4	‘통합사회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과 과제’ 성기창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건축과]
16:20-16:40	토론	자유토론
16:40-17:00	폐회	질의응답 및 폐회

* 행사 참석 신청하기(아래의 링크주소를 클릭하거나, 주소창에 복사 붙여넣기하여 작성바랍니다.)

<https://goo.gl/forms/4U64393UYsQRkK4w1>